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6년 포어 §

주님,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
(교후 5:18-21, 창 33:1-4)

十 행동 지침十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
- 2. 다음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설날,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

은 가족이 모처럼 한 자리에서 만나 즐거운 시간을 가지게 되는 설날,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일 때 하나님께 예배하며 가족 주심을 감사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전도의 기회를 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예배모범을 제시한다.

<예 배 순 서>

인도 : 가족 중 어른

목	도	다 함	계
성	시 시편 1편 1-3절	인	도
찬	송 304장 (통일 404장)	다	함
기	도(또는 사도신경)	가	족
성	경 이사야 43:1-7	인	도
메	시 "너는 내 것이라"	인	도
찬	송 563장 (통일 411장)	다	함
주	기	다	함

이사야 43장 1절~7절

1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2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3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임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4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 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5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6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7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 내가 지었고 그들 내가 만들었느니라

너는 내 것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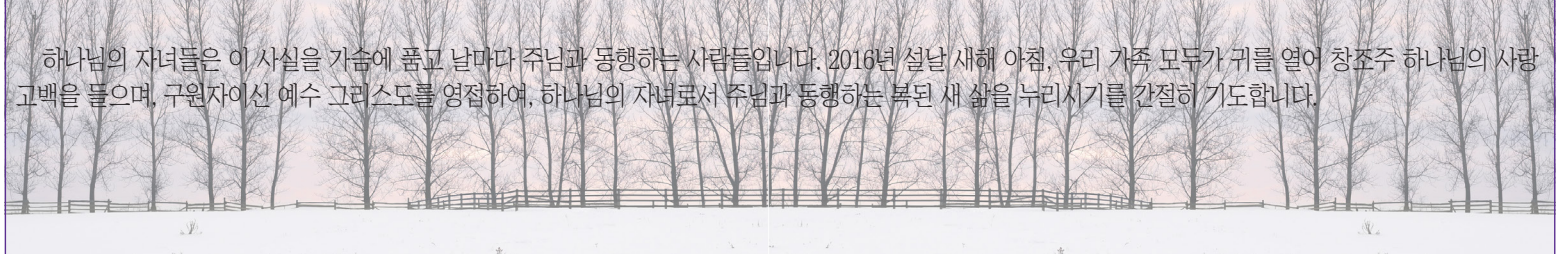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 온가족이 함께 모여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감동적으로 사랑을 고백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는 내 것이라." 우리 가족 모두가 이 하나님의 사랑 고백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예술작가들이 자신의 최고의 작품을 생명을 다해 아끼고 사랑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며 깊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대속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좋은 물건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것에 상응하는 값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구속이란 말은 노예가 자유인으로 해방되기 위해 바치는 대금, 대가를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속전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그의 택한 성도들, 우리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속량물로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속의 죽음을 믿는 자를 위해 독생자의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사실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셋째로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성령님)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2절과 3절 상반부를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임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어떤 역경 속에 있을 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든지 불 가운데로 행하든지 너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사실을 가슴에 품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2016년 설날 새해 아침, 우리 가족 모두가 귀를 열어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들으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새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설날 되도록

세상 문화를 기독교 문화로 이끌어 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설날 연휴가 금주에 시작되었다. 이번 연휴기간 동안 수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향할 예정이라고 매스컴에서 연일 보도하고 있다.

우리 기독교인이 명절만 되면 항상 어려움에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제사의 문제일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축복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번 설날을 하나님

께 온전히 감사하는 시간으로 삼아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우리의 가족과 친척에게 전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고향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하나 그러나 안 믿는 가족들의 양심과 전도를 위해 삼가고 기도하는 설날 연휴가 되도록 하자.

2016 전반기 장학생 선발 오리엔테이션 : 2월 14일(주일) 오후 4시, 본당 장학금 수여식 : 2월 14일(주일) - 찬양예배시간에

서울교회 장학회(회장: 안인호 장로)는 2016년 전반기 장학생을 선발하고 다음 주일 찬양예배 시간에 장학금 수여식을 갖는다. 장학금 수여식에 앞서 오후 4시에 있을 오리엔테이션에 대상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할 때에 장학금을 받을 본인명의의 통장 계좌번호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장학금 수여식에 단정한 복장으로 참여한다. 선발된 학생들은 총61명으로 본인의 믿음이 신실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하며 교회봉사에 모범적인 학생들이다. 서울교회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이 말씀 안에서 이 나라와 교회를 이끄는 기둥들이 되도록 기도한다. 장학생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송암장학생-31명

한동주 박성수 김성은 김성경 신원열 김민정7 정상준 허소정 차주호 양문열 송채원 조영제 임채연 장재혁

김재욱 이상헌 김수정 장지윤 김현지 최의진 김영기 이예원 안세인 최희연 하유진 임주빈 김 휘 한동민 박소연 류한희 마건영

· 고등부-10명

김은초 정예빈 김미르 박민수 마승완 송윤희 황수지 문예림 고하영 이우진

· 디아스포라부-3명

김윤미 김수진 조영금

· 교역자 · 선교사 자녀-11명

황성진 김지혜 우하은 김예림 이준행 우성은 조채린 조라혜 이평화 이지행 임재우

· 호산나전문대학-6명

나동원 성동제 방준혁 김우영 양현준 서보현

농어촌 100교회 후원자

전현주(1) 최학인 최소희(0.5) 김복녀(0.5) 오치열 하숙(1) 스테반회(2) 오세복(0.5)

비전2020운동 후원자

전인화(1) 오세복(0.5) 김복녀(1) 최학인(1) 손재겸(1) 장명순(1) 윤찬오(1) 홍재식(1) 진돈(1) 오치열 하숙(1) 조원영(2) 나정균(1) 서상근(1) 김철수 김서윤(1) 박동희(1) 신금대(1) 전현주(1) 스테반회(5)

한가족 한선교사 후원자

한광훈 장미자(0.5) 윤현준 김경애(0.5) 김원중 이갑연(0.5) 김성은 김성경 김요한 (1 청소년구좌) 노문환 장정화(1) 김영표 권소희(1) 이종욱 이재경(1) 심재하(1) 청소년구좌) 심재호(1 청소년구좌) 심주하(1 청소년구좌) 심실아(1 청소년구좌) 유선아(0.5) 김동봉 임미경(1) 김지희(2)(0.5) 3-6다락방(0.5) 최상균 박혜선(0.5) 손종근 최은석(0.5) 육순자(0.5) 박창호 송민정(1) 이진명(1) 최영희(3) 최금봉(0.5) 한건수 유안순(0.5) 13-16다락방(0.5) 오만옥 박미영(1) 오치열 하숙(0.5) 김영표 권소희(1) 김석봉 박동희(0.5) 김복녀(0.5) 최학인 최소희(0.5) 스테반회(2) 오세복(0.5) 김덕길(1) 강정화(1) 전현주(1) 정치는 김영현(1)

이종윤 원로 목사의 크리스찬의 신앙곡선

고난에서 승리하는 비결-I

(고 후 1:3-9)

일평생 한 번도 고난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땅 위에 아무도 없다. 원하던 하지 않던 고난은 우리에게 수시로 찾아온다. 문제는 찾아온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해결해 나가느냐에 있다.

어떤 이는 고난을 당하면 좌절한다. 이런 사람들은 때로 난폭해지고 방탕에 빠지고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 비극에 처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고난이 올 때 고난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대처하므로 오히려 훌륭한 결과를 가져오는 사람들도 있다.

고난을 밟고 일어나 용기와 기쁨과 승리를 체험한 사람들이 이 땅 위에 허다하게 있음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히 12:6).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채찍질 하신다고 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기신 고난을 내 몸에 채우기를 원노라'고까지 했다. 그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끼기를 원했던 것이다.

본문에 고난 또는 환난이라는 단어가 8번,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9번이나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고난이 있는 곳에 위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따르는 것이지 고난이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없다. 바울은 고난을 설명하며 '찬송하리이다'라고 한다. 그는 고난을 역경과 고통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감사의 제목으로 받았다.

1. 고난의 의미

(1) 자기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복을 받는 통로이다

고난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무엇보다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허물과 죄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인격자로 바뀌어지는 귀한 복을 받게 된다.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해 보지 않은 사람, 고난의 자리에 앉아보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기 어렵다. 바울은 굶주리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오해와 멸시를 당하는 고통을 겪은 후에야 자기의 실체를 보고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은 고난의 겸손한 터널을 지난 다음에 비로소 할 수 있는 말이다.

(2)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어 주는 방편이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제일인 줄 알았던 사람이다. 그러나 무서운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교만의 껍질을 하나씩 벗어버렸고, 마침내는 하나님 앞에서 별거벗은 몸으로 자신을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고백했다. 야곱도 광야에서 잠을 자며 고난의 돌베개를 벤 후에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3) 성도를 완성시킨다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 고난을 통해 자신은 연단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점차 온전한 신자가 되어간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었다"(히 5:8).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통하여 온전해지는 비결을 배운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신앙 인격이 정금과 같이 될 것이다.

(4) 고난 당한 자를 위로하게 한다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이 고난당할 때 위로자가 되어야 한다(고후 1:4).

(5)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케 되는 영광을 누리게 한다

"형제들이 너희가 불시험 당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라"(벧전 4:12-13). 우리가 공의를 행하다가, 주님의 뜻을 이루다가, 매를 맞고 오해를 받고 고통을 당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이다.

우리의 고난이 연단의 방법으로 오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며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길이 된다면 우리는 이 가시밭길을 할렐루야 하면서 이연한 발바닥으로 마음껏 짓밟으며 걸어가야 할 것이다.

(다음주 계속)

겨울 수련회 초대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민영기 집사
(디아스포라부 부장)

통일의 소망을 함께 하시고 늘 기도하시는 서울교회 성도님들께 문안드립니다.

디아스포라부는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으로 온 탈북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통일의 소망을 가슴에 안고 통일시대의 민족 복음화와 북한선교를 위한 지도자 양성을 사명으로 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미 서울교회 디아스포라부를 거쳐 배출된 많은 형제자매들이 통일일꾼으로 한국과 세계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부는 2016년 2월 13일(토) 오전 10시 서울교회 903호에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라는 주제로 겨울수련회를 진행합니다. 금번 수련

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며 멀지 않아 통일이 되면 북한에 달려가서 ‘느헤미야처럼 성전을 건축하는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수련회를 통하여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크게 성장하여 장차 북한 전역에 푸른 복음의 시대가 디아스포라 형제자매들의 손에서 이루어 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탈북 형제자매들이 신앙의 성장이나 생활적 측면에서 아직 여러 가지 미약함이 많습니다. 서울교회 성도님들의 각별한 사랑과 관심이 무엇보다 절실히 필요합니다. 금번 수련회에 오셔서 함께 기도 하십시오 않겠습니까? 디아스포라부는 북한선교에 관심 있는 성도님 누구나 환영합니다. 겨울수련회가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성도님들의 격려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겨울 수련회 초대

믿음으로 순종해요



박광옥 집사
(사랑부 부장)

2016년 사랑부 겨울성경학교가 2월 14일(주일) 오전 10시30분부터 102호실에서 진행됩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요”라는 주제로 박영준 목사님의 지도아래 ‘우리 친구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랑부 친구들이 되게 한다’를 목표로 진행합니다. 나날이 양적으로 성장하는 사랑부 친구들이 믿음이 자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질적으로도 한 단계 더 성숙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의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락방 리더 수련회

힘듦 대신에 기쁨을 주신 주님!



신혜진 권사
(15교구)

저희 다락방은 여자 직장다락방으로 목요일 저녁 8시에 모여 대부분이 40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교사로서 29년간 재직하다가 2013년 1월, 사표를 내고 좀 쉬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 제가 다락방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권유를 받고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기도

하는 중에 이 직분을 맡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직장다락방모임을 통하여 다락방 식구들이 지친 심신을 서로 위로 받고 힘을 얻는 힐링 다락방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다락방예배를 위해 다음과 같이 준비했습니다.

첫째, 직장인들이어서 늦어도 올 수 있도록 모임장소를 저의 집으로 정했습니다.

둘째, 저는 다락방모임을 더 오고 싶도록 하기 위해서 맛있는 다과를 준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셋째, 저는 다락방 나눔지를 통해서 모임을 가질 때 맨 마지막에 있는 나눔과 적용에 가장 중점을 두

었습니다.

넷째, 다락방모임이 끝나면 다락방에 나오지 못한 분들을 위해 공동카톡방에 다락방 식구들의 축하해 줄 일과 중보기도가 필요한 내용을 알립니다.

다섯째, 다락방식구들에게 쉬운 일이지만 역할을 쥐여 다락방모임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여섯 번째, 모임에 좀 변화를 주기 위해서 1년에 두 번은 외부로 나갑니다.

일곱 번째,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너무 바쁘고 지칠 수 있기 때문에 매일 아침 성경과 관련된 좋은 말씀을 카톡방으로 보내드립니다.

여덟 번째, 다락방식구들이 서로의 마음을 공감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아홉 번째, 새로운 식구가 저희 다락방 소속이라고 배정을 받게 되면 다락방모임에 대해 소개하고 권면하지만 아직 본인이 나올 의사가 없거나 바빠서 나오지 못해도 강하게 권유하지도 않지만 무관심하지도 않습니다.

열 번째, 1년에 한번 받는 목사님의 심방예배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열한 번째, 특별 새벽기도회를 갈 때 카풀을 해서 갑니다. 이러면 서로 의지하며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열두 번째, 다락방식구 모두가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이 되도록 믿음으로 남편을 바로 세우고 자녀들을 세우도록 많이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만나 이런 좋은 만남을 갖게 되니 얼마나 감사하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때 다락방 모임을 준비하면서 힘들다고 느낄 때도 있지만 서로 만나 믿음으로 대화를 나누고 교제하다보면 그 힘들 대신에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부담스럽게 시작했던 다락방장이었지만 그것으로 인해 제 시야와 역량이 늘어나고 믿음이 좀 더 자라게 된 것 같아서 기쁩니다.

다락방장인 저의 역할보다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믿음이 좋은 분들이 저희 다락방에 오셔서 4명으로 시작한 다락방이 13명으로 부흥하여 제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특별한 것이 없음에도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국시민양성

천국에서 봉사하고 있으면!



김도훈 집사
(유초등연합2부
부장)

얼마 전 우리 유초등 연합 2부 예배를 드리는 장소인 701호실 앞에서 한 장로님을 뵈었습니다. 장로님께서는 제게 안부 겸 요즘 어느 부서를 섬기고 있는냐고 물으셨습니다. '유초등 연합 2부예배'를 맡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장로님께서는 "천국에서 봉사하고 있으면!"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처럼 타 교육부서를 섬길 때 느끼지 못했던 영혼의 맑아짐을 느끼며, 우리 친구들을 만나는 자체

로만도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천국부서, 유초등 연합 2부는 주일 오전 11시 20분에 예배로 시작해서 말씀에 따른 여러가지 활동과 성경암송을 실시한 후 12시30분경에 마칩니다. 인원도 지속적으로 늘어 70~80명 정도가 출석하고 있습니다. 1~3학년의 유년부와 4~6학년의 초등부로 구분·편성된 유초등 연합 2부는 예배를 인도해 주시는 심진희 목사님, 고수은 전도사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미래의 천국시민 양성의 초석을 다지며 또한 음악·미술·놀이활동·말씀복습 퀴즈 등을 포함한 각 방면에 다재다능한 여러 선생님들

의 교육활동 지도로 친구들의 개성과 달란트의 계발에도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 심목사님 이하 우리 모든 선생님들은 새로운 마음으로 보다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우리 친구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가운데 새 친구들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1~6학년 어린이들이 있으시다면 유초등 연합 2부 예배로 보내주십시오. 천국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겨울 성경학교 · 수련회

디아스포라부 : 2월 13일(토), 사랑부 : 2월 14일(주) / 서울교회

부서	일시	장소	주제	강사
유아부	2월 26일(금)~27일(토)	서울교회	바르게 믿어요!	박노철 목사 구분혜 전도사
유치부	2월 26일(금)~27일(토)	서울교회	순종할래요	박노철 목사 양세라 목사
유년부	2월 26일(금)~27일(토)	서울교회	터치 & 액션	박노철 목사 고수은 전도사
초등부	2월 26일(금)~27일(토)	서울교회	터치 & 액션	박노철 목사 심진희 목사
청년1부 청년2부	2월 18일(목)~ 20일(토)	아세아연합 신학대학교	청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박노철 목사 정요셉 목사 (전 안양제일교회 대학부 총괄) 서준권 목사 정대은 목사 장재원 전도사
사랑부	2월 14일(주)	서울교회	믿음으로 순종해요	박노철 목사 박영준 목사
에바다부	2월 27일(토)	서울교회	사랑과 섬김	박노철 목사 임규현 목사
디아스포라부	2월 13일(토)	서울교회	복음으로 하나되게 하소서	박노철 목사 서명철 목사

동정

- 이종윤 원도목사는 2월7일(주) 섬김의 교회에서 주일 예배설교를 한다.
- 주일식당봉사 : 루디아, 도르가전도회(2.7) 이삭선교회(2.14)
- 금주의 식사 제공 : 교회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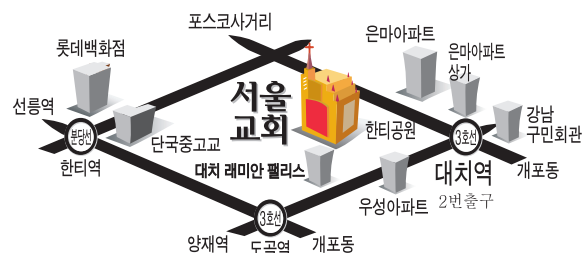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설날을 맞이하여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과 친지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여 복음 증거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2. 이 나라에 모든 우상숭배가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복된 민족 될 수 있도록
3. 2월 13일(토) 디아스포라부 겨울수련회와 2월 14일(주) 사랑부 겨울성경학교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양예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